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郁
編輯兼印刷人 崔鳳守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報 東大時報
電話 ⑤1685・1686・1687

(週刊)
月定購讀料 貳百圓
一部定價 五十圓

生無善行
死墮惡道
往疾病間
到無資用
(法句經)

히로새 覺醒과 決意를

大盛式念式「날의生學」回五第

三日 第二九回光州學生事件記念日第五回「學生의날」을맞이한 中央學園에서는 多數內外貴賓을 參與한 가운데 記念式을 盛大히 擧行하는한편 學徒의 身分으로서 正義感과 犧牲精神을 낭랑히發揮하여 他學生의 수範이된 善行學徒 表彰式을 殿堂히 擧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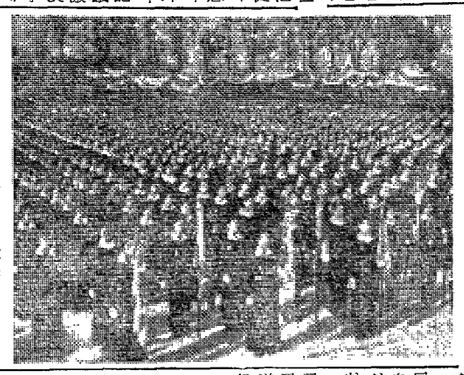
이날第五回 學生의날記念式은 奏樂으로서 開式되었다 음國民儀禮에 이어開式辭가 大學生代表에 依하여 行하여 겪으며 文敎部長官의記念辭에이어 趙民議員 副議長및 金서울市敎育長의 激勵辭 大學生代表의 學徒決議文朗讀 善行學徒表彰 學生의노래 우리의盟誓等의제 장이있은다음 뜻깊은 이날의 記念式을 끝마쳤다.

그런데 이날 全國男女中高生을對象으로 市道區에서 推薦된 全國善行學徒 十六名에게는 表彰狀과 賞品이授與되었는데 이러한表彰은學生의道義心을 昂揚하고學徒風紀淨化를 期코자 發生된 것이다

生의날」의 年例行事이다 平等의原則과 民族의獨立을 渴求하여 마지않은光州學生 事件 第二九回 記念日이며 이날을 學生의 날로制定한 第五回 記念日에서採擇된決 議文은다음과같다.(사진=이날城東原頭의 記念式光景)

精神武裝도 鞏固하게

道義心昂揚爲한善行學徒表彰



의確立을 期한다.

(二) 우리들 百萬學徒는 民族的 先覺임을 自覺하고 自己責任을 自覺하고 相互人格의尊重으로서 道義確立을期한다.

(三) 우리들 百萬學徒는 民族의 先覺임을 自覺하고 民族의 宿願인統一聖業의完遂와 反共戰線의 先驅者의 役割을期한다.

親睦排球戰서大勝

本校化學會排球班서

本校化學會 排球班은 지난二十七日 上午十一時부터 高大그라운드에서 열린바있는 各大學校 化學會親睦排球大會에서 榮譽의 優勝을 獲得하였다. 이날 많은學生들과 一般觀衆이 參集한가운데에 市內四個綜合大學이 出戰, 곧 리그戰이 展開되었다 同 大會에서 本大學校化學會排球班은始終如一 꾸준한 熱戰을거듭—結局 最終戰에서 成大팀을 리찌고 優勝을하였는데 이날의大會는 各學會間의 相互親睦을 圖謀키 爲한것과 高大그라운드에서 열린바있는 各大學校 化學會親睦排球大會에서 榮譽의 優勝을 獲得하였다. 이날 많은學生들과 一般觀衆이 參集한가운데에 市內四個綜合大學이 出戰, 곧 리그戰이 展開되었다 同 大會에서 本大學校化學會排球班은始終如一 꾸준한 熱戰을거듭—結局 最終戰에서 成大팀을 리찌고 優勝을하였는데 이날 十月中 圖書閱覽者가無慮四千餘名에 達한다고 發表하였다

그런데 各大學別로 發表된 十月中 圖書閱覽者數는 다음과같다.

▲總閱覽圖書數=一、七三二冊 ▲敎職員=四名 ▲大學院=二五名 ▲佛敎大學=二八九名 ▲文理大=一、〇〇二名 ▲法政大=一、四一九名 ▲農林大=一六三名 ▲一般人=十三名 ▲鎭外貸出=六九名

10月中閱覽者 無慮四千餘名

本校 中央圖書館에서는지난 十月中 圖書閱覽者가無慮四千餘名에 達한다고 發表하였다

(寫眞은本校排球敎授후비룻한 排球班一行)

大學放送劇 去五日上演

本大學校 演劇部에서는過般日刊紙에 「全國大學放送劇鑑演大會」에 지난五日(火) 參加한바있다한다 同鑑演大會는公報室主催라하며 本大學演劇部는 去五日下午八時半부터三〇分間 서울放送局에서 오랜동안練習하였던 演劇을上演하였다 同演劇部는 本大學校講師 朴永民先生의 指導下에 部長 黃稀昌君을위시하여 全員이合心하여 演劇의習練結果 훌륭한 演技를表現하였다한다 同演劇의레마는 어느科學硏究所에있는 技士가 硏究에熱中하여 全精熱을잃어버리게 性格이狂變하는 人生悲劇을 훌륭히 描寫하여 全國청취자들의 心琴을울리었다 專門家들의評에依하면 同演劇部員들은앞으로유望한 學生들이라한다

二日禪武部創設

三周記念式擧行

二日下午四時半第一講堂에서는 本大學校 學生委員會 禪武部創設二周年記念式이鄭 學生課長을 爲始하여 學生 委員部 一同 그리고 五〇餘 禪武部員들이 參席한가운데 열리었다

이날記念式은 다음 校歌合唱에 辭가있은 員宣誓가있었고 學生總委長 宣誓書朗讀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 記念式에서 禪武部員들은 앞 席上처럼 攻防熱辨을 吐함으로서 여흥을 制壓한바있었다 한편 盛況을이룬가운데幕을 내린 同模擬國會施賞式은 同部員 二十九日 上午 同大學總長室에서 行하였는데 이날 特等賞(總長賞)은 本校 尹在植君(政一)에게 授여되었다(사진=特等賞授여者尹在植君)

大學 去五日上演

二日 哲學講演盛況

二日本校十九講義室서

지난二日(土曜日) 下午三時韓國哲學會主催로 第二回月例哲學講演會가 本大學校第十九講義室에서 內外敎授를비롯한많은學生들이 參集한가운데 열리었다 이날講演會는 延大張庚鶴 政大崔軾敎授의 參席하였으며 오는第三回發表會 會員 十時三〇分부터 總委員會를 開하여 決定하였다

服裝儉素化運動展開

全校生15日內着服을 慫慂

本大學校 學生委員會및十長 宣誓書君의 人事말에 報導에는 本校와 放送局의 提案說明이 있은다음 具體的인 儉素化運動方 針에 一二〇餘字에達하는 檄文을 作成 通過하는 一方 于先服 裝儉素化에 따르는 制服은 合意를얻은 同會議에는 經濟的인作業服 의確立을 期한다.

(二) 우리들 百萬學徒는 民族的 先覺임을 自覺하고 自己責任을 自覺하고 相互人格의尊重으로서 道義確立을期한다.

(三) 우리들 百萬學徒는 民族의 先覺임을 自覺하고 宿願인統一聖業의完遂와 反共戰線의 先驅者의 役割을期한다.

于先經濟的인作業服으로

全校生15日內着服을慫慂

南民國會」라 號稱하는 同模擬國會서 本校代議員들은 始終如一 實在國會議 席上처럼 攻防熱辨을 吐함으로서 여흥을 制壓한바있었다

한편 盛況을이룬가운데幕을 내린 同模擬國會施賞式은 同部員 二十九日 上午 同大學總長室에서 行하였는데 이날 特等賞(總長賞)은 本校 尹在植君(政一)에게 授여되었다(사진=特等賞授여者尹在植君)

尹在植君에特等賞

第七回模擬國會서

高大 政治學生會 主催 政治學會서는 五名의代議員 二〇〇餘字에達하는 檄文을 作成 通過하는 一方 于先服 裝儉素化에 따르는 制服은 追後公 裝儉素化에 따르는 制服은 決定하였다 이번 同模擬國會에 本校 代議員 二十八日 市公館에서 一七〇명의여 野大學黨員들이 參 加한가운데 「國會議員選擧法 案」「選挙管理委員會法」을 上程하고 興味있게 開催된바있다

高大新報10週

記念祝賀宴擧行

高大新報第十週年記念祝賀 宴擧行되었다 이날 二百十四時半부터 同 大學構內食堂에서 擧行되었다

菩提樹

三法印

危態의政治危機「프랑스」

「프랑스」의政治危機

服裝儉素化運動

紛失廣告

船舶料割引 申請을要望

알법代要納付 法·政알법委서

嘆!! 壯!! 勇!!

檄

東國大學校 服裝儉素化運動委員會

東國大學校 服裝儉素化運動委員會

政治學入門

D·H·솔토우 著
金雲泰 譯
定價 二〇〇〇圓
精研社刊

TS엘리올文學論

李昌培 譯
菊版 洋裝 五五〇面
定價 二、〇〇〇圓

內容
第一編 傳統과 個人의 才能
批評의 職能
古典論
第二編 自由詩考
韻文과 散文
詩와 批評
詩와 宣傳
詩의 音樂性
詩와 劇
딴테論
웨스피어論
形而上學的詩人論
밀톤論
드라이든論
뽀오들레르論
에즈라·파운드論

販賣 精研社刊

遺傳科學의驚異

…胎兒의性도人爲的으로左右할수있다…

白大鉉

(外) 信은 美國의 미쉬간大學의 遺傳科學者「미스엘·고오든」博士가 토끼의 胎兒의性을 人爲的으로 調節한는데에서 一部分的이나마 成功을 거두었다고 報道하고있다。即 이와 같은 「고오든」博士의 男女의 性을 人爲的으로 調節하려는 實驗研究의 着眼點은 高等動物의 卵細胞가 잘 아서 수컷個體로부터 精子를받은후 受胎되여 한個의 生命을갖인 새로운個體로서 發生成長하는경우 그 태兒의性은 卵細胞가 받여들인 精子의種類에달아서決定된다는 이미 細胞遺傳學上으로 確立된 發生學의 智識에다 根本的인 基礎를 둔것으로생각된다。

(即) 生殖細胞가 發生하는 全過程을보면 먼 다음의 설명이 표시하는 바와같이 男子나 女子의 生殖器를 構成하는 體細胞안에는 一組의染色體가있는데 其半은 아버지에게서 온것이고 남어지의半은 어머니에게서온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에게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오는 半組의染色體들中 各各하나씩은 男女의性을 決定짓는 性染色體이다 그러므로 男子나女子의生殖細胞를構成하는 體細胞안에는 二個의 性染色體가있는데 男子의體細胞에는 X와Y라는 二個의性染色體가있고 女子의體細胞안에는 X라는 性染色體만이 二個있다。即 男性은 모양과性質이 서로달른 二個의 性染色體를 갖이며 女性은 모양과性質이서로비슷한 同수의 性染色體를 二個갖이고 染色體를 갖는것도있다 即 卵細胞에는 X性染色體만 갖인것이 있는데에 男子의精子는 X性染色體를 갖인것도있다 또어떤精子는 Y性染色體를 갖는것도있다 即 卵細胞에는 X性染色體를갖는 精子에는 X와Y의性 染色體가있고 女子의卵細胞에는 X性染色體만 갖인것이 있는데 이것들은어러뭐이었어서 서로두개로 갈라져서 精子와 卵子에로 옮겨간다。그러므로 性染色體에關한限 女子에게서 產出된 卵細胞들은 모두가 一般의X性染色體만 갖인것도있다 即 男子가產出한 精子에는 一般染色體들과 더부러 어떤精子는 X性染色體를 갖인것도있다 또어떤精子는 Y性染色體를 갖는것도있다 即 卵細胞에는 X性染色體를갖는 精子에는 X와Y의性 染色體를갖는 二種類의精子를 各各 유離해서 分離시켜야된다。

(그) 男女의性을 人爲的으로調節해서 決定지어놀려는 東西古今을通해서 많은 父母들이 希求해온 所願을 풀어주는데에있어 希望의 光線을傳해준은 바로 미쉬간大學의 「고오든」博士인것이다。今그는 技術的으로分離하여 精子를 받어들이기前에 X性染色體와 Y性 染色體를갖는 二種類의精子를 各各 태에있어서는 암컷과수컷의 토끼씨기를 半半씩產出하지만 이경우에있어서는 암컷만 색기가 八割이나 產出되었다고한다。

(이) 그것들이 定着된 溶液에뜰한電流를 通하면 X性染色體를갖는精子는陽極으로올러가는경향이 있고 Y性染色體를갖는 精子는 陰極을向해서 올러가 發見하였었다 그래서 그는 技術的으로分離된 精子를 받어들이기前에 X性染色體를갖는 精子는 增加되고 Y性染色體를갖는 精子는 減少되는 特性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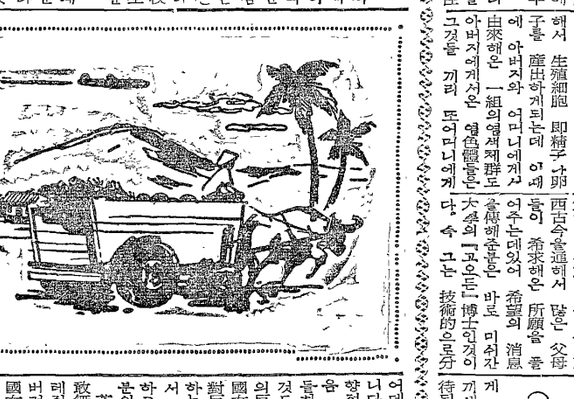
(만) 일에 Y性染色體를갖는 精子만을 가지고 알로끼에 受胎식혔다면 그것은 Y性染色體를 가진 人類가 古今을 通해서가 지금껏 願하는 所願을 達成하는데 別難題는 없을것이다。

(筆者=農學博士·農林大專敎授)

第二信

九月十九日 學校가 시작되였읍니다 새學期가 시작되자 첫째는에띄운것은 이곳學生들의 服裝입니다 여기저기 들아다녀 보았지만 우리나라 學生들 服裝처럼 華麗한 옷차림을한 學生은 없었읍니다 아무렇게나 긴 쓰봉을 걸치고 軍靴나 스탠바강은것을 신고 學校에나오고 있읍니다 女學生들도 마찬가지로 활옷素한 服裝을하고 있읍니다

敎會나 어떤모임에나갈때는 比較的 깨끗한옷을 걸칠뿐 그外에는 아무렇게나입고다니더군요 곧어가면서도 『옷을 입기어려운 X性染色體와 Y性染色體를갖는 一種類의 成功하였다고 主張하고있다 즉 그가 그의 硏究의 材料로 使用한 토끼의 精子는 X와 Y의 性染色體를갖는 두가지種類가 있는데 이것들은어러뭐이었어서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러가지로 微微하게 다른點을 綜合的으로 觀察取捨해서 區別할수가 있다고한다 「고오든」博士에依하면 이두가지種類의 精子는그것들을構成하는 蛋白質의量과狀態가 다르다고 한다。 精子는 溶液에뜰한電流를



三根李

이날개라」는 哲理를 信奉한는 一部우리나라學生이가 끔면오릅니다 그러나이곳學生들의 敎室에서의 授業態度에는 걸렸읍니다 敎授에 달렸지만 普通講義時間中學生들이 담배도 피우고잔혹 커피며 코가코라를 마셔가며노오르하는 光景을봅니다 女子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더甚하게 담배를피우니 더욱절색이고 그렇지않아도진다리를 짜상위에다 잔뜩올려놓고 담배를피우며 꺼덕려가는學生도있읍니다 學校에 工夫하러오는지 놀러오는지 분간을못하겠읍니다

亦是 誠意있는學生들의工夫外는態度는 달랐읍니다왕 熱心히 工夫하고 있읍니다 美國學生들은 몸도좋은지라 매일밥 한시두시까지工夫를하면서도 하나疲困한氣色이 없읍니다

圖書館에가보면 늘같은學生이 같은자리에서 같은時間까지 工夫하고 있는學生을 봅니다 이學校에온지 一年이되지만 市內 구경을 못하였다는 學生이잔혹있읍니다 그처럼 時間을아껴써 읍니다 이곳은 學生들 敎授들을 莫論하고 잠 몸이 좋습니다 健康한 몸이라 어느程度 무리를 해서 工夫를해도 別支障이 없는모양입니다 「工夫」하고 「肺病」하고 무슨四寸같이생각하고 있읍니다 弱하면 弱할수록 秀才라고 生覺하는 사람이여기에는없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사람들의 健康이 부러웠읍니다 學校에서는 開放한 金校生이 撤底한 身體檢査를 받습니다 몸이 弱한 學生은 受講申請에도 制限이있어 많이 못들게 됩니다 每土曜日 午後에는 學校運動場에서 「풋볼」깨임이열리고 全敎授 學生들을 비롯해서 이곳住民들이 總動員 되여응援합니다 美國各地에 「풋볼」을 불러 試合을하는데 土曜日午後면 거리는 텅빈듯이 모두 運動場에몰려가 試合에 熱中합니다 一週日에 한번씩있는이런모임을通해 校內의 親睦關結은 勿論 全體가和合하게됩니다

이러試合이며 무슨行事가 있을때마다第一흥분해서떠드는것은 女學生들입니다 담배도男子들보다 더熱心히피우고 밥도많이먹고 잘루도 많이이겨입니다 가끔 美國女子의나라라는 錯覺도이르키지요 英語의 (GENTLE) 이나 (POLITE) 等의 부드러운말은 最少限美國男子들을 修節하는 形容詞가 될전데 결지않을것 같읍니다 모든 女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읍니다 女子들중해 생각되며 코가코라를 마셔가며노오르하는 光景을봅니다 敎室에서의 授業態度에는 걸렸읍니다 敎授에 달렸지만 普通講義時間中學生들이 담배도 피우고잔혹 커피며 코가코라를 마셔가며노오르하는 光景을봅니다 女子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더甚하게 담배를피우니 더욱절색이고 그렇지않아도진다리를 짜상위에다 잔뜩올려놓고 담배를피우며 꺼덕려가는學生도있읍니다 學校에 工夫하러오는지 놀러오는지 분간을못하겠읍니다

亦是 誠意있는學生들의工夫外는態度는 달랐읍니다왕 熱心히 工夫하고 있읍니다 美國學生들은 몸도좋은지라 매일밥 한시두시까지工夫를하면서도 하나疲困한氣色이 없읍니다

圖書館에가보면 늘같은學生이 같은자리에서 같은時間까지 工夫하고 있는學生을 봅니다 이學校에온지 一年이되지만 市內 구경을 못하였다는 學生이잔혹있읍니다 그처럼 時間을아껴써 읍니다 이곳은 學生들 敎授들을 莫論하고 잠 몸이 좋습니다 健康한 몸이라 어느程度 무리를 해서 工夫를해도 別支障이 없는모양입니다 「工夫」하고 「肺病」하고 무슨四寸같이생각하고 있읍니다 弱하면 弱할수록 秀才라고 生覺하는 사람이여기에는없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사람들의 健康이 부러웠읍니다 學校에서는 開放한 金校生이 撤底한 身體檢査를 받습니다 몸이 弱한 學生은 受講申請에도 制限이있어 많이 못들게 됩니다 每土曜日 午後에는 學校運動場에서 「풋볼」깨임이열리고 全敎授 學生들을 비롯해서 이곳住民들이 總動員 되여응援합니다 美國各地에

韓國經濟의實情

朴元雨

韓國은 四〇年間의 日本 土를 南北으로兩斷하여 南 奉에서는 南韓만으로 成立 帝國主義의治下에서 一九四 韓에는 美軍이 北韓에는蘇 된 大韓民國의 經濟事情을 五年八月十五日 聯合軍의勝 軍이進駐하여 各己 軍政을 考察하여 보기로한다。 利로 解放이 되었으나 國 實施하게되었던것이다 本論 即 三年間의 美軍政을

韓國經濟의 現狀을 最良書를 最大한 많이읽어서 理解하는 일일것이다。그러면 어떤 길을밟아서 이目的에 到達할수있을것인가。

첫째로 速讀이다。現代技術 明의 加速度的인 發達과廣範한敎育의 普及과文化의 複雜多岐한 分化過去 어느 時代에도 볼수 없는 巨大한量의書籍出版을 招來하였다。 그렇으로 지나간날의 한두 두권로 읽어 나가는 달팽이기어가는 式의 讀書法은 트랜트諢 出現時代에는 들어 맞지 않을 것이다。過去에 있어서 글 한권읽는 時間에 只今은 一行 읽임이었던時 한페지에 페 어떠야할 時代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相當한修練과 豫備知識이必要하다。

그러나 아무리 最良 最多數의 讀書 의目標가 서 있다 하더라도 人間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는것이라 個人의 專門分野와 趣味에 따라 자연히 讀書範圍는 制限될것이고 책 選擇의考慮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 讀書의 方面 即 種類問題가나겠으나 그래도 讀書의 質과 量의問題는 어떠한 分野에 있어서도 適用될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하면 좋을冊을 擇할수있을것인가。 또이러한 좋은 冊을 누구의 指示에따라 알수있을것인가의 問題가 提기될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누구의 어떠한 음임은면 좋겠느냐는 漠然한 質問을 해오는 사람이 있으나 아마이러한 學生들은 讀書를 잘 알하는 學生일것이다 왜냐하면 書籍은 누구의 추천이나 評으로저 良書를 알게되느니보다 먼저自身이讀書를 많이함으로서 스스로 좋은 冊을알게 되는 境遇가 훨씬많기때문이다 그럼으로 좋은冊의 發見과選擇은 多讀하는데에 스스로 생겨나온다고 말할수 있다。

讀書의 理想은 最良書를 最大한 많이읽어서 理解하는 일일것이다。그러면 어떤 길을밟아서 이目的에 到達할수있을것인가。

첫째로 速讀이다。現代技術 明의 加速度的인 發達과廣範한敎育의 普及과文化의 複雜多岐한 分化過去 어느 時代에도 볼수 없는 巨大한量의書籍出版을 招來하였다。 그렇으로 지나간날의 한두 두권로 읽어 나가는 달팽이기어가는 式의 讀書法은 트랜트諢 出現時代에는 들어 맞지 않을 것이다。過去에 있어서 글 한권읽는 時間에 只今은 一行 읽임이었던時 한페지에 페 어떠야할 時代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相當한修練과 豫備知識이必要하다。

그러나 아무리 最良 最多數의 讀書 의目標가 서 있다 하더라도 人間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는것이라 個人의 專門分野와 趣味에 따라 자연히 讀書範圍는 制限될것이고 책 選擇의考慮 書籍은 누구의 추천이나 評으로저 良書를 알게되느니보다 먼저自身이讀書를 많이함으로서 스스로 좋은 冊을알게 되는 境遇가 훨씬많기때문이다 그럼으로 좋은冊의 發見과選擇은 多讀하는데에 스스로 생겨나온다고 말할수 있다。

讀書觀

이날개라」는 哲理를 信奉한는 一部우리나라學生이가 끔면오릅니다 그러나이곳學生들의 敎室에서의 授業態度에는 걸렸읍니다 敎授에 달렸지만 普通講義時間中學生들이 담배도 피우고잔혹 커피며 코가코라를 마셔가며노오르하는 光景을봅니다 女子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더甚하게 담배를피우니 더욱절색이고 그렇지않아도진다리를 짜상위에다 잔뜩올려놓고 담배를피우며 꺼덕려가는學生도있읍니다 學校에 工夫하러오는지 놀러오는지 분간을못하겠읍니다

亦是 誠意있는學生들의工夫外는態度는 달랐읍니다왕 熱心히 工夫하고 있읍니다 美國學生들은 몸도좋은지라 매일밥 한시두시까지工夫를하면서도 하나疲困한氣色이 없읍니다

圖書館에가보면 늘같은學生이 같은자리에서 같은時間까지 工夫하고 있는學生을 봅니다 이學校에온지 一年이되지만 市內 구경을 못하였다는 學生이잔혹있읍니다 그처럼 時間을아껴써 읍니다 이곳은 學生들 敎授들을 莫論하고 잠 몸이 좋습니다 健康한 몸이라 어느程度 무리를 해서 工夫를해도 別支障이 없는모양입니다 「工夫」하고 「肺病」하고 무슨四寸같이생각하고 있읍니다 弱하면 弱할수록 秀才라고 生覺하는 사람이여기에는없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사람들의 健康이 부러웠읍니다 學校에서는 開放한 金校生이 撤底한 身體檢査를 받습니다 몸이 弱한 學生은 受講申請에도 制限이있어 많이 못들게 됩니다 每土曜日 午後에는 學校運動場에서 「풋볼」깨임이열리고 全敎授 學生들을 비롯해서 이곳住民들이 總動員 되여응援합니다 美國各地에

時調漢譯 (22)

退耕 權相老

(一八四)
울며 잡은소매 떨치고 가지마소
草綠 長堤에 해다서 저무렀다
客館에 殘燈도 두고 앉이모랴 알리라
(李明漢)

(一八五)
곧게 다니는길이 자죽나 날수록
넘의집 應門에 石路라도 닳을듯다
곧길이 자죽없을때 그리워하노라
(李明漢)

(一八六)
자내집에 술이거든 부디 고대숙다셜주라
(樂柏年)

(一八七)
君山을 削平들을 洞庭湖 넓을줄아 桂樹를 베혀들을 달이어욱 밝을줄을 뜻줄고 이루지 못하니 그를서워하노라
(李 浣)

君山削去湖愈闊 桂樹多除月益明 平生有意兩般事 直至如今一未成

(一八八)
靑春 곧은樣子 넘을 내여 다늙었다 이제 넘이보면 놀인줄 아르실가 넘께서 놀인줄알작시면 고대숙다셜주라
(樂柏年)

因君今日老如斯 君今見我能知否 倘得君知死不辭
(一八九)
日中 三足烏야 가지말고 말드러라 너히는 反哺鳥라 鳥中之 會子니 우리의 鴉雀親을 더 되늙게하여라
(許 筬)

寄語日中三足烏 爾能反哺報親勞 於人可比曾參孝 倘使吾親不老無

輸出品은原始的生產物

外資와技術導入에積極性時急

朴元雨

韓國은 四〇年間의 日本 土를 南北으로兩斷하여 南 奉에서는 南韓만으로 成立 帝國主義의治下에서 一九四 韓에는 美軍이 北韓에는蘇 된 大韓民國의 經濟事情을 五年八月十五日 聯合軍의勝 軍이進駐하여 各己 軍政을 考察하여 보기로한다。 利로 解放이 되었으나 國 實施하게되었던것이다 本論 即 三年間의 美軍政을

韓國經濟의 現狀을 最良書를 最大한 많이읽어서 理解하는 일일것이다。그러면 어떤 길을밟아서 이目的에 到達할수있을것인가。

첫째로 速讀이다。現代技術 明의 加速度的인 發達과廣範한敎育의 普及과文化의 複雜多岐한 分化過去 어느 時代에도 볼수 없는 巨大한量의書籍出版을 招來하였다。 그렇으로 지나간날의 한두 두권로 읽어 나가는 달팽이기어가는 式의 讀書法은 트랜트諢 出現時代에는 들어 맞지 않을 것이다。過去에 있어서 글 한권읽는 時間에 只今은 一行 읽임이었던時 한페지에 페 어떠야할 時代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相當한修練과 豫備知識이必要하다。

그러나 아무리 最良 最多數의 讀書 의目標가 서 있다 하더라도 人間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는것이라 個人의 專門分野와 趣味에 따라 자연히 讀書範圍는 制限될것이고 책 選擇의考慮 書籍은 누구의 추천이나 評으로저 良書를 알게되느니보다 먼저自身이讀書를 많이함으로서 스스로 좋은 冊을알게 되는 境遇가 훨씬많기때문이다 그럼으로 좋은冊의 發見과選擇은 多讀하는데에 스스로 생겨나온다고 말할수 있다。

(敎) 童들로하여금 되도록 그들의 學習과 活動計劃에 參加하려하나 그것은 敎師의 보다廣範한 經驗과 協同의 計劃과 活動을 시키지않으면 안된다。

(兒) 童들이 一致融合 되여 생각하고 活動하게되면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爲한 努力이 充分한가를 嚴密히 檢討하는 것이다。

(學) 習欲은 人間에 固有한 性質로되여 있는것을 記憶해 가지 않으면안된다 어떠한 時代에 어떠한 時代에 있어서 敎育은 어떠한 目的을 設定해야되며 重要한 活動을 集團的으로計劃하는것이다。 敎師는 敎科書의選定 學校의 組織 敎具備品의 選擇에 參加하여 經驗과 問題를 交換하고 協同하여 解決할것을 計劃 學級聯合機構가 있어서 敎師와 學生 校長가 한덩어리되여서 活動하거나 計劃을 세우는 것이다。 兒童 人個人의 發達을 期하여야할것이다 그것을 兒童들로 부터 배워 그것을 兒童의 生活에 適合하게 利用되는 것이다。 (筆者=文理大敎授)

語學의完全習得과速讀에힘쓰는方向

吳碩奎

(敎) 童들로하여금 되도록 그들의 學習과 活動計劃에 參加하려하나 그것은 敎師의 보다廣範한 經驗과 協同의 計劃과 活動을 시키지않으면 안된다。

(兒) 童이 一致融合 되여 생각하고 活動하게되면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爲한 努力이 充分한가를 嚴密히 檢討하는 것이다。

(學) 習欲은 人間에 固有한 性質로되여 있는것을 記憶해 가지 않으면안된다 어떠한 時代에 어떠한 時代에 있어서 敎育은 어떠한 目的을 設定해야되며 重要한 活動을 集團的으로計劃하는것이다。 敎師는 敎科書의選定 學校의 組織 敎具備品의 選擇에 參加하여 經驗과 問題를 交換하고 協同하여 解決할것을 計劃 學級聯合機構가 있어서 敎師와 學生 校長가 한덩어리되여서 活動하거나 計劃을 세우는 것이다。 兒童 人個人의 發達을 期하여야할것이다 그것을 兒童들로 부터 배워 그것을 兒童의 生活에 適合하게 利用되는 것이다。 (筆者=文理大敎授)

語學의完全習得과速讀에힘쓰는方向

吳碩奎

(敎) 童들로하여금 되도록 그들의 學習과 活動計劃에 參加하려하나 그것은 敎師의 보다廣範한 經驗과 協同의 計劃과 活動을 시키지않으면 안된다。

(兒) 童이 一致融合 되여 생각하고 活動하게되면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爲한 努力이 充分한가를 嚴密히 檢討하는 것이다。

(學) 習欲은 人間에 固有한 性質로되여 있는것을 記憶해 가지 않으면안된다 어떠한 時代에 어떠한 時代에 있어서 敎育은 어떠한 目的을 設定해야되며 重要한 活動을 集團的으로計劃하는것이다。 敎師는 敎科書의選定 學校의 組織 敎具備品의 選擇에 參加하여 經驗과 問題를 交換하고 協同하여 解決할것을 計劃 學級聯合機構가 있어서 敎師와 學生 校長가 한덩어리되여서 活動하거나 計劃을 세우는 것이다。 兒童 人個人의 發達을 期하여야할것이다 그것을 兒童들로 부터 배워 그것을 兒童의 生活에 適合하게 利用되는 것이다。 (筆者=文理大敎授)

一(下) 沙

生活的 民主的 學園

(學) 習欲은 人間에 固有한 性質로되여 있는것을 記憶해 가지 않으면안된다 어떠한 時代에 어떠한 時代에 있어서 敎育은 어떠한 目的을 設定해야되며 重要한 活動을 集團的으로計劃하는것이다。 敎師는 敎科書의選定 學校의 組織 敎具備品의 選擇에 參加하여 經驗과 問題를 交換하고 協同하여 解決할것을 計劃 學級聯合機構가 있어서 敎師와 學生 校長가 한덩어리되여서 活動하거나 計劃을 세우는 것이다。 兒童 人個人의 發達을 期하여야할것이다 그것을 兒童들로 부터 배워 그것을 兒童의 生活에 適合하게 利用되는 것이다。 (筆者=文理大敎授)

國學研究社 著作兼發行人 崔敏芝 東大法政大學 師範學校 46版 337面 定價600圓 國學論叢

東洋思想의 主潮

一 東洋思想의 主潮

朴 充 洙

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敏 洙

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 個人主義

李 敏 洙

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 東洋思想의 主潮

朴 充 洙

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七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八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九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三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四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五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六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七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八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百九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三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四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五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六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七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八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二百九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三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四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五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六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七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八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三百九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三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四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五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六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七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八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四百九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三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四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五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六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七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八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五百九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七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八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二十九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一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二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三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四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五 東洋思想의 主潮

李 在 洙

六百三十六 東洋思想의 主潮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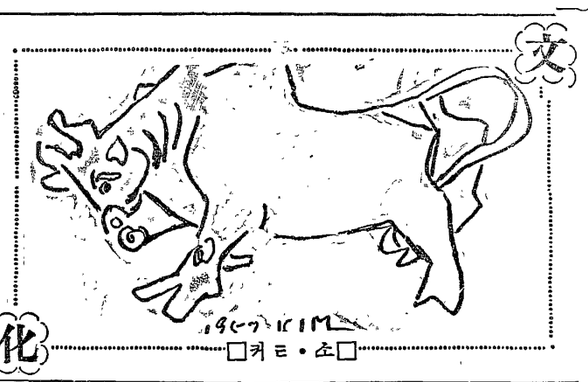
十一月의 詩評

月評이란것이어떤 意味에선아주 無意味한것인지도모른다。그意味는 그것이本格的批評의일이 아니라 讀者에의 다리를 놓아주는경우가 많으며 本是月評의理由가그곳에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月評을 쓰는 理由는 어디있을까。그것은 詩에의 理解를 북돋자는데 있다。즉詩를 올바로 읽히며 讀者의 內外眼識을 넓히는데 있다고본다。詩에의理解가가는 곳에 詩가 잘자라갈수있기 때문이다。

그런 意味에서 나는 十一月『詩評』을 그作品의 客觀性에 立脚해서 點檢해볼려는 것이다。

이 철 범



◇反歌……(金光均)

리의 氏記憶속에 그리생생하지않지만 줄記憶 活躍하던 詩人이며 生年동안 온희하였던분이라는것을 다들어보면 數二十年前나는알수있다그詩人이『黃昏歌』라는 詩集을내므로 다시詩의再出發을 하고있는것 같이인다우리는『파레리』가 近二十年을 沈默을지켰을때 詩를쓰기하는것처럼보였지만 그間의沈默이그의方法의 모색이였다는것을생각할때 氏에게도 그럼 意味의沈默이였기를바란다 그러나詩『反歌』를읽고는우리는 그러한 큰期待엔 어근난 가벼운 학시의詩 主로 老心에기운 黃혼빛같은 가벼운 서情이 흐름을 맛본분이다 그저 그것뿐이다

◇詩人共和國(朴斗鎭)……

音樂이 標題音樂이라는것이 있다 말그대로 어떤「테마」가 붙어있어 音樂이 그 粹世界를 말하는것이다『詩人共和國』이라는 詩를나는 上記한두例로서說明하고싶다 즉이 『詩人共和國』이란詩는 標題音樂처럼 미리『詩人共和國』이란 自己따네의 理念을 設定해놓고 詩가그것을 說明한데 지나지않았다 詩的表象과描寫의차이를 아라야할것이다。

◇經宴 인(金尚億)……觀念的을「는피지컬포엠」이라고 한다。可令物體라든가 뚜렷한對象을 神이라든가자랑이라든가 막연한것을 잡는때에 이詩는 一種의그리한 詩인데 그詩全體로흐르는「무드」가 自己따네의 默示錄같은것이다그러기때문에 그全的흐름이明確하지않으며 한개개것처럼애매함을 免치못하였다 「이마주」가 흩어

◇反歌……(金光均)

리의 氏記憶속에 그리생생하지않지만 줄記憶 活躍하던 詩人이며 生年동안 온희하였던분이라는것을 다들어보면 數二十年前나는알수있다그詩人이『黃昏歌』라는 詩集을내므로 다시詩의再出發을 하고있는것 같이인다우리는『파레리』가 近二十年을 沈默을지켰을때 詩를쓰기하는것처럼보였지만 그間의沈默이그의方法의 모색이였다는것을생각할때 氏에게도 그럼 意味의沈默이였기를바란다 그러나詩『反歌』를읽고는우리는 그러한 큰期待엔 어근난 가벼운 학시의詩 主로 老心에기운 黃혼빛같은 가벼운 서情이 흐름을 맛본분이다 그저 그것뿐이다

◇詩人共和國(朴斗鎭)……

音樂이 標題音樂이라는것이 있다 말그대로 어떤「테마」가 붙어있어 音樂이 그 粹世界를 말하는것이다『詩人共和國』이라는 詩를나는 上記한두例로서說明하고싶다 즉이 『詩人共和國』이란詩는 標題音樂처럼 미리『詩人共和國』이란 自己따네의 理念을 設定해놓고 詩가그것을 說明한데 지나지않았다 詩的表象과描寫의차이를 아라야할것이다。

……(金尚億)……觀念的

◇經宴 인(金尚億)……觀念的을「는피지컬포엠」이라고 한다。可令物體라든가 뚜렷한對象을 神이라든가자랑이라든가 막연한것을 잡는때에 이詩는 一種의그리한 詩인데 그詩全體로흐르는「무드」가 自己따네의 默示錄같은것이다그러기때문에 그全的흐름이明確하지않으며 한개개것처럼애매함을 免치못하였다 「이마주」가 흩어

◇反歌……(金光均)

리의 氏記憶속에 그리생생하지않지만 줄記憶 活躍하던 詩人이며 生年동안 온희하였던분이라는것을 다들어보면 數二十年前나는알수있다그詩人이『黃昏歌』라는 詩集을내므로 다시詩의再出發을 하고있는것 같이인다우리는『파레리』가 近二十年을 沈默을지켰을때 詩를쓰기하는것처럼보였지만 그間의沈默이그의方法의 모색이였다는것을생각할때 氏에게도 그럼 意味의沈默이였기를바란다 그러나詩『反歌』를읽고는우리는 그러한 큰期待엔 어근난 가벼운 학시의詩 主로 老心에기운 黃혼빛같은 가벼운 서情이 흐름을 맛본분이다 그저 그것뿐이다

◇詩人共和國(朴斗鎭)……

音樂이 標題音樂이라는것이 있다 말그대로 어떤「테마」가 붙어있어 音樂이 그 粹世界를 말하는것이다『詩人共和國』이라는 詩를나는 上記한두例로서說明하고싶다 즉이 『詩人共和國』이란詩는 標題音樂처럼 미리『詩人共和國』이란 自己따네의 理念을 設定해놓고 詩가그것을 說明한데 지나지않았다 詩的表象과描寫의차이를 아라야할것이다。

……(金尚億)……觀念的

◇經宴 인(金尚億)……觀念的을「는피지컬포엠」이라고 한다。可令物體라든가 뚜렷한對象을 神이라든가자랑이라든가 막연한것을 잡는때에 이詩는 一種의그리한 詩인데 그詩全體로흐르는「무드」가 自己따네의 默示錄같은것이다그러기때문에 그全的흐름이明確하지않으며 한개개것처럼애매함을 免치못하였다 「이마주」가 흩어

◇反歌……(金光均)

리의 氏記憶속에 그리생생하지않지만 줄記憶 活躍하던 詩人이며 生年동안 온희하였던분이라는것을 다들어보면 數二十年前나는알수있다그詩人이『黃昏歌』라는 詩集을내므로 다시詩의再出發을 하고있는것 같이인다우리는『파레리』가 近二十年을 沈默을지켰을때 詩를쓰기하는것처럼보였지만 그間의沈默이그의方法의 모색이였다는것을생각할때 氏에게도 그럼 意味의沈默이였기를바란다 그러나詩『反歌』를읽고는우리는 그러한 큰期待엔 어근난 가벼운 학시의詩 主로 老心에기운 黃혼빛같은 가벼운 서情이 흐름을 맛본분이다 그저 그것뿐이다

◇詩人共和國(朴斗鎭)……

音樂이 標題音樂이라는것이 있다 말그대로 어떤「테마」가 붙어있어 音樂이 그 粹世界를 말하는것이다『詩人共和國』이라는 詩를나는 上記한두例로서說明하고싶다 즉이 『詩人共和國』이란詩는 標題音樂처럼 미리『詩人共和國』이란 自己따네의 理念을 設定해놓고 詩가그것을 說明한데 지나지않았다 詩的表象과描寫의차이를 아라야할것이다。

……(金尚億)……觀念的

◇經宴 인(金尚億)……觀念的을「는피지컬포엠」이라고 한다。可令物體라든가 뚜렷한對象을 神이라든가자랑이라든가 막연한것을 잡는때에 이詩는 一種의그리한 詩인데 그詩全體로흐르는「무드」가 自己따네의 默示錄같은것이다그러기때문에 그全的흐름이明確하지않으며 한개개것처럼애매함을 免치못하였다 「이마주」가 흩어

鮮明하여서 그觀念性이 좀 더뚜렷이 浮彫되면 한다 以上現代文學

▲南江(金東鳴)……動亂 詩的인 經驗으로삼았다 그 詩的인 經驗이냉혹한 전쟁의 現實이나갔는 意識이 아니라 오히려 그 情서 的氣分을 품고있다 그러데 그서情的인 氣分이 너무 誇張되어서 출感傷에 빠졌다『아아·만난것이 도리어 離別보다 셜여라』자칫하면流行歌에빠질危險이 濃厚한句節이다

◇어디서부르는소리가있기에 (張壽哲)……

一種의 戀情이 갑로는詩이다。그 戀情이란 어느女人에 對한 어느宗敎에對한 그러한것이아니라 『故鄕』이그리다하는 句節이 內包하는그러한것이다『별레소리』에문득먹곳의故鄕을찾아하늘을본다같은것으로미루워보건대모두故鄕에의 그리움이 어떤 故鄕의風土의記憶에서온

◇靈言……(金洙暎)……從前의詩가 보여주던 强烈한生活에서 意識이줄어들고 高次的인것으로 되어가는듯 싶다 즉形而上學的인世界에 空虛感에 살찌는空虛보다더 무서운憂愁이있다하는句節과 빗방울보다 더큰跡(我)의 동句 내버려둔自然도)의 동句 節에서 그는 어느 虛無意識이 宇宙間인 現象속으로 同化되어버리는 神秘의골짜구니를 感知하고있다 그러나 第一節의 詩句(나는젊은 사나이의 그 눈초리를 보았다)가 뚜렷한 이마주를 그리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全體的인 이마주의統一이 잡히지 않는다。

◇어느제비一家의하루 (李)……이詩는 제비의 살림

(뒷)

海外讀書欄

**** 뿌 때문도아니다 ****

BY VLADIMIR DUDINTSER 512PP NEW YORK. DUTTON &CO. $4.75.

이冊은 現今中國에對한 硏究를 收錄하였으며 著者는 LE MONDE라는 파리新聞의 極東派遣記者이다 그는中國에서 數年間 駐在하는 동안의經驗推斷을 基礎로해서이冊을陳述하였고 信賴할수없는價格水準에서 中國은 과行的인物質的成功을 하였다고말했다 비록中共政府는 廣汎히 크며 冬眠하는 六億의 人的資源을 所有하고 있지만 無秩序하고 不可避한 要求를 其國民에게 賦課하고있으며 오늘날 中共은 自己를破壞할 反人道主義에 依하여汗染되고 있다고 著者는 記載하였다

『知慧는 숨기였고 버림받았다 내가만난中國人들은 모두가 好奇心을 喪失한듯 하였다』라고 著者는 非常한觀察力을 發揮하여 對照의 歷史的이요 地理學的인 基礎를 보여주고있다

이冊은中國新聞과 인터뷰에서 取材한記事를 變形하여 綴輯하였으며 많은歡迎을받았다 美國記者나 홍콩에있는學者와 佛人같이 中共國家의비루방자들이 迅刊를 재록했으며 또한著者는 健實하고 詳細하게 現段階의 新感覺을 描寫했으며 그의一般的推斷은 刺戟的이요 有毒性이었다 著者는 내가中共에 到着할때는 迷惑되었으나 離出할때는 절식을 느끼었다』라고말하였다

**** 六億의中國民 ****

BY ROBERT GNILLAIN 310PP NEW YORK CRITERION BOOKS $5

이小說은 惡의根性을 表現하는 興味陳陳한 冊으로써最近에 購賣力이좋은BEST-SELLER 이다 過般七月 모스코에서 行한 強力한監視을 받바있는 判行物들前의作品으로 이책은 NOWMIR이라는 雜誌에 分割出版한바있다 이冊은 쏘련의 官僚制度의 率直한批評과 感覺을描사하였다

후루시체프ㅇ는 이冊을컬어 中傷的인作品이라고非難했으며 美國과英國의 刊行物의 迅速한 局面에다가 著者는 이小說은 그들(쏘련)에 선전目的에서 不公明하게 使用되었다ㅇ라고 表明하였다 著者가 當局測과 衝突했을때 이冊은 獻上된科學發明者들에 依해서 對立된 困難의 硏究이다 北極에있는 수용소에 流配當했으나 後에 歸還하며 軍隊에 依하여 助力을 받는다 그러나 또다시 官僚政治家인 自己親友로 말미암아 鐵窓의신세를진다 이小說은 明確한 論理的인 見地로 보아서 高位의 程度가 않이며 構造는 헤실하고 說明은수다스러우며 文體는 散文體이다그러나知慧의 숨은ODYSSEY와 眞定과 正義에 對하여 激熱히 叙述되였다 쏘련의 指配階級을 銳利하게說明하였고 前世代의 苦悶은 文學的결합에도 불구하고 有罪로써 表現되였으며 冊이新紀元의 記錄으로써 번역되였고 眞情하게 再現하는 쏘련 知識人의 思想과方法에 침투하는일을 따른다 이小說은 近年의 文學的이요 社會的인 變動을 記述하였고 西方側讀者에게 『쏘련』이란 학목의 그림을 提供하였으며 많은旅行家에게도 新精報를提供하였다

칸트의 倫理學

=生涯와業績=

法政大 法學科 R·부르크맨 李臥牛譯 (上)

(내용이별이 빛나는 하늘가? (WIEMUS—德律이있다)—

〃七八八年에 第二회著〃實踐理性의批判〃發刊되였다。

여기에서 第二의問題는 이렇게 行爲하여야만하는가? (WIEMUS—SICHHAND—ELN)에 對答하고있다

이問題는 大體로 哲學과같이다 매우오랜歷史를 지닌것이다 倫理學은 科學이다 이칸트의 與하는 倫理學書도 우리들 實踐的인生活 (PRAKTISCHENLEBEN)안으로引導하며 주고있다 本書에서 칸트는 理性을 만아니라 實踐的인 生活 故 이야기하며 人生의 靈(精神) 的活動의面을 實踐理性이라고稱한다 希臘人들은倫理學即道德學(MORALLEBRE)에그것을 全體哲學의 主部門이고 또한最高의善의學이란 意味를 賦與했었다。亦是KANT에게서도 倫理學은 매우顯著하며 따라서 새로운 倫理의創立은 그의主要業績인것이다 이第二의主著以外에서 倫理의形而上學論(GRUNDLEGUNJURMEPHYSIKD—TAPHYSIKDER SITTEN (1785) 와「倫理形而上學」(METERPHYSKDERSITTEN (1797) 의 두 券의 道德學書도 發刊하였다 이三著書에서 KANT는 다음과같이 道德에 關하여 가르치고있다 即 「우는世界의 빛나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내안에 道德律이있다」—

〃七八八年에 第二회著〃實踐理性의批判〃發刊되였다。

여기에서 第二의問題는 이렇게 行爲하여야만하는가? (WIEMUS—SICHHAND—ELN)에 對答하고있다

이問題는 大體로 哲學과같이다 매우오랜歷史를 지닌것이다 倫理學은 科學이다 이칸트의 與하는 倫理學書도 우리들 實踐的인生活 (PRAKTISCHENLEBEN)안으로引導하며 주고있다 本書에서 칸트는 理性을 만아니라 實踐的인 生活 故 이야기하며 人生의 靈(精神) 的活動의面을 實踐理性이라고稱한다 希臘人들은倫理學即道德學(MORALLEBRE)에그것을 全體哲學의 主部門이고 또한最高의善의學이란 意味를 賦與했었다。亦是KANT에게서도 倫理學은 매우顯著하며 따라서 새로운 倫理의創立은 그의主要業績인것이다 이第二의主著以外에서 倫理의形而上學論(GRUNDLEGUNJURMEPHYSIKDER SITTEN (1785) 와「倫理形而上學」(METERPHYSKDERSITTEN (1797) 의 두 券의

東國 詩壇

文理大 國文科 宋東均

密語

별처 명광년의 밤이 바깨기전 나는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 宮에서 떨어졌을 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瞳子는 미쳐 世上을 보기 여겨웠고 귀는 수다한 소리가 차마 어지러웠으며 코는누를 내가 슬퍼고。

허지만 울음한 속박을 거역하고 일을의 마련은 무엇인가 말하기 어려운 기쁨과 슬픔의 사연이 고여

눈의 흰자의 道程과 또하나 그안엔 서러운 知慧 마냥 密語가 처음으로 마련되어있었다。

다수술고 마성거려 일을안엔 創始적 어머니 젖이 슬픔되어 그것이 어느날 密語의 意味로 異性의 抱擁을 억히고 憧憬을 들여마실 부사꽃처럼 붉어오를 마음。

정녕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 宮에서 떨어졌을 날 일을이야 不信의 時代를 이겨고 罪惡의 時代를 다사로운 密語들억제 필연은 고단한 慾情과 血脈으로 하나 가비야」 陵線의 곡지를 더듬고 있었다。

현실속에서는 아무턴마음 의 故鄕도 求할수없다는데 나의 꿈을純碎意識의 世界 속에서 形成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 남의 고향에 있다고 그의아들에게 故鄕인 南國이야기를 시작하네 비나라 에서 너녀히였을수있 서 갖는 童心의世界를 그 리는것이다 할이다

◇廢園詩情 (朴成龍)……四目같이 感情을 移入하여 다시 그 感情을 最小限度 廢園에다 모사하여 그곳에서 또하나의(무—드)를 그려보자는 것이다。

四節까지는 廢園의 모습이고 五節은 그위에 바람과무신히불어太陽이 쏟는다고 하므로서 어떤無當을 등장시킴은 神秘的인것이 있다고 廢園넘어다 어떤 빛을 에서하고있다。

以上으로서 나는 十月 詩를 놓어보겠이며 主로그가 經驗에서 얻은事物과 客觀性으로 분것이다。

故로 여기서 내가본 面은 詩人의 心理狀態라든지 詩的經驗面에 立脚하여 그것이 詩로서 이렇게 나타났는가 하는點이기때문에 그 全體的인 靈圍氣에서 같는 詩의 交響樂 對話點은無視 되 點이있다 (筆者=評論家)

新映畫

★解說★映畫

는 最近佛獨合作 映畫「오이지나 오리지나脚本熟練 과 多樣으로 映 畫界에 協力하고 있는 佛國西方의現 代作家조셉·케셀 會를 小說을映畫의 作家에 偶然한 機會에 서로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는 情愛 진 가를 過去

것으로서 언뜻순결로因하여 사랑하는 두청년男女가 떨어지지못하고 서로헤여지지않을수 없는 宿命의悲哀!即 各其가장사랑 하여야할사람이 妻와男便을 殺害한 男女가 가지가지의 쓰라린 追憶에 휘둘리는 大都會를 避하여「포든듀걸」의 港口都市 리스보아에서 偶然한 機會에 알게되어 서로 뜨거운 사랑을주게 되어 來日에의 삶의 希望을 이 가슴에 가득할 瞬間 咀呪할 過去의 追憶때문에 사랑하기에 헤여지지 않으면 안될人生의 부절없음을 그리영화로서 熱이 솟는 南歐港都의 雰圍氣를 背境으로 描寫하고있다 配役으로는「놀라 윤父母」에서 特有의 妙味를 보여준「다니엘 제 꼭스」와「倫落의女人」「禁斷의열매」等에서 特有의 魅力을 날리示現한「주란 소와스·아놀트」의 神秘的인 肉體派女優가 女主人公役을 맡어 好演을보 여주며「눈물없이 사나이」等에 出演한「트레바·하씨드」等三大스—타가 主演役을 담당하고있다 一時間上映 을豫하는 佛國西映社作品이다 (六日부터 明寶劇場에서 開封)

安重根 (4)

金始英 作 李英哲 畫

想隨

病的인것과 멋

金東 (藝林大 藝學科)

創作

안과밖

李英哲 畫

쉐익스피어全集(1)

로미오와쥬리엘

金在枏譯

劇文學이라는 事實을 항상留意하여 되도록 現代의口語調로하고 또한同量의 譯에努力했다。韻文表現의 努力은포기하였다。註가必要한곳도 피하고 譯文안에서 傳達되도록했다。

…(序文 一節)…

定價 500圓

發行 漢陽文化社

文化堂刊

新刊

簿記原理

菊版 250面 半洋裝

定價 1.000圓

東國大學校 敎授

文敎部商業科 考試委員

李龍澤著

◇簿記實力完成의完璧書◇

1. 簿記의 基礎理論 과實際를 總網羅한入門的權威書
2. 檢定敎科書(商業簿記·高等商業)의敎師用指針으로 編纂
3. 文敎部 商業科 敎師 資格試驗 準備書
4. 計理士 試驗 準備書
5. 實務家의 參考와 大學敎材 最適書

總販

서울 乙支路 四街

長安書林

洪性囿著

增訂 經濟政策

三五二面 定價 一七〇〇圓

一潮閣 發行

十月中受贈圖書統計

寄贈者 書名

韓國産業銀行調査部 産業銀行月報
大韓商工會議所 産業經濟
서울미국공보원 米書다요리
교통도서관교 통
京畿道法經委員會 京畿道誌
委員長
特許局 特許公報
金在·남 先生 로미오와쥬리엘
韓國物理學學生會 宇宙
金根洙先生 東國資料集成
鍾路六街 勞動
大韓勞總京畿勞動組合
中央大學校 聯合學會 法政論叢
遞信圖書館 遞信文化
特許局 特許公報
許 韓國銀行調査部 韓國銀行調査月報
T.S. 영리옷 文學論
李昌培 先生
公報室 情報
朝鮮電業株式會社 電源開發計劃要覽
國民大學法學會 法學會誌
韓國興業銀行調査部 今週의經濟
外務部通商局 國際經濟機構의解說
VICTOR 51.176
U.N.C.U.R.K 470K INDONG.
韓國銀行調査部

市內龍山區 交通高等學校學務部 交學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圖書館協會 圖書月報
韓美奬學委員會 ACTIUIOO
사로—레—되·마이넥 KKNUMB
크女史 ERTWO等
本機庶務課 농업慶經 (一—二) (臨水本)
外務部 議題를中心으로 第一二次UN總會展望
〃 北大西洋條機構의意義와發展相 SELECTEDDOCUMENTS
〃 UNIEICA
財務部理財局 財政經濟統計月報
市內中區明洞一街一 카토릭青年社
韓國興業銀行調査部 今週의經濟
서울미국공보원 THEOYARTIE
本機敎務課 NAOYARTIE
서大 師大 RLYREVIW
金基錫 先生 卒業生名簿
韓國産業銀行 理性
市內中區小公洞七四 産業銀行月報
林業時報社 育林
乙支路二街一九九 證券月報
大韓證券去來所 世界經濟
韓國銀行調査部 韓國銀行調査月報
〃 財政統計月報
財務部總務課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提供